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세계시민의식, 진로정체성, 진로준비행동 및 협력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융합연구

유영미¹, 심선주², 박선영^{3*}

^{1,3}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 교수, ²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교수

Convergence Research on the Effect of Awareness Enhancing Education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n Global Citizenship, Career Identit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Cooperative Efficacy

Young Mi Ryu¹, Seon-Ju Sim², Sun-Young Park^{3*}

^{1,3}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²Profess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에서 주관하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진로정체성, 진로준비행동 및 협력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 설계를 적용하였으며, C시 소재 일개 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에 참여한 32명의 수강생 및 수업에 수강하지 않은 32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학기 초와 학기 말에 세계시민의식,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협력적 효능감을 수집하였다. 연구 결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수강한 실험군의 세계시민의식($p=.003$)과 진로준비행동($p=.013$) 수준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진로정체성($p=.385$)과 협력적 효능감($p=.488$)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여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융합연구, 국제개발협력, 세계시민의식, 진로준비행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Abstract This convergence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effect of the awareness enhancing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college students sponsor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 quasi-experimental study design was used.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one experimental group (n=32) who attended the awareness enhancing clas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the other control group (n=32) who did not participate in the class in a university in C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online survey before the first class and after the last class in spring semester 2019.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ANCOVA using SPSS WIN Version 20.0 program. The levels of global citizenship ($p=.003$)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p=.013$) was higher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However, career identity($p=.385$) and cooperative efficacy($p=.488$)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This study proposed the direction for the awareness enhancing program of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of college students by showing its positive effects on the global citizenship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ey Words : Convergence Study,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Global Citizenship, Career Preparation Behavior,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교신저자 : 박선영(sypark@bu.ac.kr)

접수일 2019년 10월 11일 수정일 2019년 11월 27일 심사완료일 2019년 12월 4일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는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어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개인중심과 국가중심의 사고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세계시민의식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s)의 폭넓은 사용은 세계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만들었다[1].

인구증가와 인구의 이동, 자원고갈, 빈곤의 양극화, 지구 온난화, HIV/AIDS, 식량부족, 테러리즘 등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문화에 대한 이해,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리고 상호연계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글로벌의식과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을 통해 글로벌 사회에 공헌하는 자세가 범국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2]. 이러한 의식과 자세는 세계시민의식과 연결되어 있으며, 세계시민의식은 타인은 본질적으로 자신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이웃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동시에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 공동의 관심사인 인간애의 실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3]. 그리고 차세대 세계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이나 민간단체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관련 세계시민의식교육을 진행하고 있다[4].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은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다. 이 수업을 통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 대학생들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진로탐색의 기회로 삼고 있다.

대학생 시절의 진로탐색은 구체적인 미래의 진로를 선택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에 중요하며[5], 대학은 자국의 미래 후속세대와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고등학문의 주체이기 때문에 양질의 국제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국의 미래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중추 기관으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6].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자신의 적성이나 가치관 및 진로 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자신의 적성 및 흥미, 그리고 능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거나 충분하지 못하다. 또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진로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등 진로발달 지체현상은 기존의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7]. 따라서 진로에 대한 소명의식과 정체감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고되었으며, 특히 진로정체감과 자기 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8].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교육 역시 대학생의 국제화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9], 이러한 교육들은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진로정체감 및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진로탐색에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바도 있다[10].

협력적 효능감은 협력 상황에서 자신이 공동과제 수행을 위해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11], 프로젝트 기반 학습과 같은 다양한 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교수법을 적용하는 것은 협력적 효능감에 효과적이었다[12].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과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 해외자원봉사활동 후에 다문화수용성은 향상을 보인 반면 세계시민의식은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13]. 그리고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필수 교과목 운영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 등이 있다[14]. 그러나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관련 수업을 통한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논문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 수업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진로정체성, 진로준비행동 및 협력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추후 보다 효과적으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과 후속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를 규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2)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진로정체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 3)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4) 대학교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이 협력적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보건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 설계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C시에 소재한 일 개 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2019년 1학기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으며, 대조군은 이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는 보건학부 간호학과 및 치위생학과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공지하여 선착순으로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학기 초 1차 설문문에 참여한 학생들이 실험군 34명, 대조군 33명이었다. 학기 말 2차 설문 조사는 실험군 학생 중 두 명이 수강 철회를 하였고, 대조군 중 한 명이 참여하지 않아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 32명씩 총 64명이 참여하였으며, 64명의 자료가 최종 자료 분석에 활용되었다.

소성섭 등의 연구에서[15] 세계시민의식의 효과 크기가 0.76이었던 것을 근거로 G*power 3.1.9.2 프로그램에서[16] 본 연구의 효과 크기를 0.70,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independent t -test로 설정하였을 때, 각 그룹별로 26명씩 총 52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출되어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2.3 연구도구

2.3.1 세계시민의식

세계시민의식은 지역 및 국가정체성을 넘어서 세계의 상호의존적 체제를 이해하고, 협력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며, 세계적 수준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지역적 관점을 초월한 글로벌 소양을 의미한다[17]. 본 연구에서 세계시민의식은 윤성혜가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세계시민의식 척도로 측정하였다[17]. 본 도구는 지식 요인 7문항, 기술(skill) 요인 8문항, 태도 요인 7문항, 실천

의지 요인 9문항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을 주는 5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세계시민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윤성혜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0 이었으며[17], 하위요인별로는 지식 요인 .85, 스킬 요인 .85, 태도 요인 .83, 실천의지 요인 .85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세계시민의식 .94, 지식요인 .86, 스킬 요인 .90, 태도 요인 .85, 실천의지 요인 .85이었다.

2.3.2 진로정체감

진로정체감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 흥미, 능력에 대한 명확하고 안정된 상을 갖추었느냐는 것을 의미한다[18]. 본 연구에서는 김봉환이 MVS(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를 변안한 것을 사용하여 진로정체감을 측정하였다[19]. 이 도구는 총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다’ 또는 ‘아니다’의 이분척도인데, 안형준의 연구에서는 이분척도 대신에 5점 리커트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고[20], 본 연구에서도 5점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의 채점은 역산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목표, 흥미, 적성, 재능 등이 명확하여 진로정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안형준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으며[20]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은 개인이 올바른 진로 결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며, 결정된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행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19]. 본 연구에서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이 제작한 16개 문항에[19] 김형균이 최근의 인터넷 진로 사이트 증가와 상담 센터의 활성화를 반영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와 ‘지난 몇 주 동안 나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진로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탐색해 보았다.’는 2문항을 추가한 18개 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된 것을 사용하였다[21]. 총점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88였고[19], 본 연구에서 .88이었다.

2.3.4 협력적 효능감

협력적 효능감은 협력 상황에서 자신이 공동과제 수행을 위해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11]. 본 연구에서는 Alavi와 McCormick이 개발한 21개 설문 문항들을[11] 오성은 등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협력적 효능감을 측정하였다[22]. 6점 리커트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협력적 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오성은 등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22],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2.4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 운영

본 수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수행하는 2019년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에 선정되어 수행되었다. 이 사업은 1년 과정이나 본 연구에서는 2019년 1학기 수업 운영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1학기 수업은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2학점 2시수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15주간 운영되었다. 수업의 목표는 학생들이 빈곤과 국제개발협력의 개념과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 관련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며, 국제개발협력 현장 견학 및 국내 현장 활동을 계획·실행함으로써 세계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것이다. 또한 강의, 전문가 특강, 토론/토의(하브루타 학습법),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 based learning, PBL)법 등 다양한 팀활동을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협력적 효능감이 향상되고 좋은 팀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구체적인 강의 내용과 교수법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urriculum of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DC)

Week	Content	Teaching Method
1	Orientation, Team Building	Team Project
2	Understanding and Cause of Poverty and Its Solution	Team Project
3	Understanding of IDC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Lecture, Chavruta
4	History of IDC	Lecture, Chavruta
5	Introduction to KOICA	Guest Lecture from KOICA
6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Lecture
7	History of IDC in Korea	Lecture
8	Introduction to IDC's Activity	Guest Lecture from World Friends
9	Introduction to IDC's Education Project: Focusing on KOICA's Bangladesh Project	Special Lecture
10	IDC Project(Nepal): How to write ODA Proposal1	PBL
11	IDC Project(Vietnam):How to write ODA Proposal2, Preparation for Domestic Activity	PBL

12	ODA Symposium:Global Citizenship, Presentation and Feedback of ODA Proposal	PBL
13	Domestic Activity: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College Students	PBL
14	Final Exam	Evaluation of Academic Achievement
15	Class Reflection	Team Activity

2.5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가 첫 주 수업에서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은 동의서를 작성한 후 온라인 설문문에 참여하도록 설명하였고, 학생들이 설문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강의실을 밖으로 나가 있었다. 실험군은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한 학기동안 참여하였다. 2차 설문은 15주차 수업에서 연구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설명한 후 1주일 이내에 온라인 설문문에 참여하도록 설명하였다.

대조군은 간호학과와 치위생학과 학생회의 SNS에 연구 참여자 모집을 공지하고 선착순으로 참여한 학생들이었다.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 중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연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온라인 설문을 제공하였으며 2차 설문도 실험군과 같은 시기에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두 집단 모두 설문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약 15-20분이었다.

2.6 자료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WIN 20.0 통계 프로그램[22]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로, 그룹 간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하였고, 종속변수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indepen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는 사진 동질성 검정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학년과 거주 형태를 공변량 처리하여 ANCOVA로 분석하였다.

2.7 연구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BUIRB201903-HR-001). 연구 대상자에게 설문 참여 전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였고 특히 연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성적에 불이익이 전혀 없음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온라인 설문을 하는 동안

연구자는 강의실 밖에 나가 있었고, 2차 설문은 학기 종료 후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대상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 와 같다. 학년과 거주 형태를 제외하고 일반적 특성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N=64)

		Experimental Group(n=32)	Control Group(n=32)	t / χ^2/F	p
Age	Mean±SD	20.53±1.11	20.81±1.55	-0.834	.408
Sex	Male	5	5	0.000	1.000
	Female	27	27		
Major	Nursing	20	20	0.000	1.000
	Dental Hygiene	12	12		
School Year	Freshman	27	20	3.778	.048
	Sophomore	2	5		
	Junior	3	7		
Residence Type	Commuting to School	16	10	5.071	.024
	Dormitory	11	9		
	Living Apart from Family	5	13		
Religion	Christianity	10	11	1.725	.500
	Catholicism	2	0		
	No Religion	20	21		
Reason for Major Selection	Aptitude	13	11	0.638	.315
	Employment	8	16		
	Medical Service	6	1		
	Others	5	4		
Major Satisfaction Level	Unsatisfactory	1	0	5.507	.105
	Average	5	13		
	Satisfactory	26	19		
Career	Nurse	19	18	0.071	.500
	Dental Hygienist	11	12		
	Others	2	2		
	None	12	13		
Number of Foreign Travel	1-3 times	14	10	1.527	.349
	4-6 times	4	5		
	7 times or above	2	4		
	None	12	13		
Participation in Team Projects	Yes	26	27	0.110	.500
	No	6	5		

3.2 사전 종속변수의 동질성 검증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 전 두 집단은 세계시민의식(p=.300), 진로정체성(p=.055), 진로준비행동(p=.614), 협력적 효능감(p=.324)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Homogeneity test (N=64)

Variable		Experimental (n=32)	Control (n=32)	t	p
Global Citizen -ship	Knowledge	4.47±0.85	4.42±0.49	0.441	.661
	Skill	3.71±0.59	3.66±0.52	0.859	.394
	Attitude	4.50±0.47	4.39±0.52	0.366	.716
	Practical Will	3.83±0.65	3.60±0.50	1.532	.131
	Total	4.09±0.46	3.98±0.41	1.044	.300
Career Identity		3.40±0.60	3.06±0.79	1.960	.05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87±0.68	2.95±0.70	-0.506	.614
Cooperative Efficacy		4.48±0.73	4.3±0.66	0.991	.325

3.3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에 참여한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해 세계시민의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p=.003). 하부 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식 요인(p=.017), 기술 요인(p=.001), 실천적 의지 요인(p=.004)에서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진로준비행동도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13). 그러나 진로정체성(p=.385)과 협력적 효능감(p=.488)은 두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는 15주간의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Table 4> Effect of Understanding of IDC (N=64)

Variable		Experimental Group (n=32)	Control Group (n=32)	F	p
Global Citizen -ship	Knowledge	4.63±0.45	4.22±0.61	6.058	.017
	Skill	4.16±0.61	3.64±0.61	11.567	.001
	Attitude	4.51±0.50	4.21±0.69	2.428	.124
	Practical Will	4.22±0.64	3.74±0.63	9.208	.004
	Total	4.36±0.47	3.93±0.55	9.634	.003
Career Identity		3.33±0.82	3.11±0.84	0.767	.385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27±0.75	2.94±0.77	6.509	.013
Cooperative Efficacy		4.71±0.77	4.56±0.86	0.486	.488

4. 논의

세계시민의식이란 지역 및 국가정체성을 넘어 세계의

상호의존적 체계를 이해하고 협력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며, 세계적 수준에서 자신의 책임에 대한 태도를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다[17].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의 세계시민의식은 교육 전 4.09 ± 0.46 에서 교육 후 4.36 ± 0.47 으로 향상되었으며 이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p=.003$). 이러한 결과는 김정아와 전지원의 연구에서 관련 교양 교과목 이수 후 세계시민의식이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과 같은 결과이다[14]. 또한 해외자원봉사활동 전 단편적인 사전교육으로는 세계시민의식 향상에는 충분치 못하며 세계시민사회에 대한 교육이 세계시민의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강혜라의 연구결과와도 같다[13]. 본 연구에서는 월드비전의 관점에 비추어 재정립한 윤성혜의 관점에 따라 세계시민의식의 하위영역을 지식, 스킬, 태도, 실천적 의지로 구성하였다[17]. 지식이란 세계시민이 갖추어야 할 인지적인 역량으로서 세계화와 상호의존성, 정체성과 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스킬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세계적 이슈에 대해 비판적, 창의적 접근과 사고의 역량을 의미한다. 태도는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포함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동시에 이러한 가치에 대한 수용을 말한다. 실천적 의지는 위의 세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글로벌 수준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험군의 지식($p=.017$), 기술($p=.001$) 실천적 의지($p=.004$) 영역에서 점수가 향상되어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정체성은 실험군과 통제군 간에 교육 전 후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유선 등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지만[24]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졸업 후 진로가 어느 정도 정해진 보건의료계열 재학생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진로 준비행동은 실험군이 교육 전 2.87 ± 0.68 에서 교육 후 3.27 ± 0.75 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이었다. 이는 전공연계봉사활동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서영환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25]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통해 세계시민의식 교육과 함께 향후 진행될 전공과 연계한 해외 의료봉사활동에 대한 준비활동을 하는 과정이 연구 대상자의 진로준비활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협력적 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지지되지는 않았지만 교육 전 4.48 ± 0.73 에서 교육 후 4.71 ± 0.77 으로 상승하

였다. 이는 임규연과 이지현[26], 김현정[1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의 주요 교수법으로 프로젝트기반 학습을 활용할 결과로 대상자들이 협력 상황에서의 공동과제 수행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 수업을 통한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여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이 가지는 의의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C시 소재 일개대학교에서 국제개발협력 이해 수업 이후에 수업에 참여한 32명의 수강생 및 수업에 수강하지 않은 32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수업 전후에 세계시민의식, 진로정체감, 진로준비행동, 그리고 협력적 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국제개발협력 이해 수업 이후 세계시민의식은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p=.003$)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지식($p=.017$), 기술($p=.001$), 실천적 의지($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이해 수업 이후에 진로준비행동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13$).

앞으로 국제개발협력 의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활동의 확대를 통해 대학생의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대학마다 진행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의 이해와 관련된 교양 수업에 대하여 국제개발협력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체계화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J.D.Kim and M.H.Kim, "Cultural disposition and global citizenship",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8, No.1, pp.163-188, 2011.
- [2] Y.J.Kim, "A Case-study on web-based instruction about global issues for fostering global citizenship",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eoul, 2011.
- [3] Y.K.Sung, "A Theoretical discussion on universal core Elements and korean distinctiveness i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37, No.2, pp.109-130, 2010.
- [4] Y.J.Ko, "The Role of NGOs in global citizenship

- education : focusing on development NGOs in Korea”,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2015.
- [5] D.E.Super, “Self-concepts in vocational development”,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pp.1-16, 1963.
- [6] T.J.Lee, “Korea-ODA and university partnership to spread knowledge base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Vol.2008, No.1, pp.32-49, 2008.
- [7] M.J.Kim, “The Effects of career identity,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 level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2010.
- [8] M.K.Shin and H.S.Kim, “The Effects of career call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mediating effect of ego-resilienc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30, No.4, pp.131-148, 2017.
- [9] Y.H.Park, “Impact of internationalization education program on awareness of internationaliza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Vol.6, pp.35-77, 2011.
- [10] T.J.Lee, “College student volunteer trip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areer search”, *Communication and Humanities*, Vol.12, pp.33-59, 2011.
- [11] S.B.Alavi, and J.McCormick, “The roles of perceived task interdependence and group members’ interdependence in the development of collective efficacy in university student group contex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78, No.3, pp.375-393, 2008.
- [12] H.J.Kim, “The Effects of project-based learning on self-efficacy for group work in LIS education”,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51, No.2, pp.95-116, 2017.
- [13] H.R.Kang, and Y.J.Hong, “Effects of overseas volunteer activities on university students’ global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 Journal of Civic Youth Studies*, Vol.6, pp.1-36, 2015.
- [14] K.A.Kim and J.W.Jeon,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operation of essential Ccurses for the cultivation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global citizenship”, *The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6, pp.125-147, 2017.
- [15] S.S.So, E.S.Jo, and S.H.Hong, “The Effects of university’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nderstanding promotion project on global citizenship”,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Cooperation Review*, Vol.10, No.2, pp.191-217, 2018.
- [16] F.Faul, E.Erdfelder, A.G.Lang, and A.Buchner,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al Research Methods*, Vol.39, No.2, pp.175-191. <https://doi.org/10.3758/BF03193146>, 2007.
- [17] S.H.Yoon, “Development of global citizenship scale for college students”, Ph.D.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2017.
- [18] J.L.Holland, D.C.Daiger, and P.G.Power,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Counseling Psychologists Press, 1980.
- [19] B.W.Kim, “Development and 2-dimensionalization of career decision making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Ph.D.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997.
- [20] H.J.Ahn, “The Effects of college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making type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Thesis, Kangwon University, Sokcho, 2013.
- [21] H.K.Kim. “Relationship analysis of career maturity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by gender and grade level”,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2002.
- [22] S.E.Oh, J.M.Lee, and B.R.Jo, “Identifying predictors for project learning achievement using facebook”,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Vol.27, No.1, pp.67-87, 2015.
- [23] IBM Corp, “IBM SPSS statistics for Windows, version 20.0.”, Armonk, NY: IBM Corp; 2011.
- [24] Y.S.Choi, E.Y.Son, and S.R.Park, “A Study on the global citizenship, career identity and self-Identity in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al Research*, Vol.31, No.2, pp.131-149, 2018.
- [25] Y.H.Seo, H.N.Yoo, K.C.Lee, and J.H.Shi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satisfaction with majors, establishment of job values, and behavior for course preparation, depending on university student’s participation motivation in voluntary service activity linked with majors”, *The Korean Journal of Growth and Development*, Vol.25, No.2, pp.211-220, 2017.
- [26] K.Y.Lim, and J.H.Lee, “The Mediating effects of co-regulation in team project-based learning: focusing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fficacy for group work, shared mental model and satisfac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24, No.4, pp.805-831, 2018.

류 영 미(Young Mi Ryu)

[정회원]



- 2015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08년 8월 : 미국 메사추세츠 주립대학교 간호학 석사
- 1996년 2월 : 서울대학교 간호학 학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간호교육, 국제개발협력, 질적 연구

심 선 주(Seon-Ju Sim)

[정회원]



- 2007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박사
- 2003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 석사
- 2001년 2월 : 전북대학교 치의학 학사

■ 2015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치위생학과 교수

<관심분야>

예방치학, 지역사회구강보건학, 국제개발협력

박 선 영(Sun-Young Park)

[종신회원]



- 2005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성인간호학 박사
- 1999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1995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 학사
- 2010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간호교육, 국제개발협력